

광주동구 문화지수 전국 4번째로 높다

지자체 230곳 분석… 전남은 무안 최고·해남 최저

광주 동구의 문화지수가 전국에서 4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에서는 무안이 가장 높고, 해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받은 도서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예술단체 수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230개 시·군·구별 문화지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동구의 문화지수가 26.400으로 서울 종로구(48.360), 대구 중구(40.150), 서울 중구(30.650)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문화지수 1.370을 기록한 달성군으로 나타났으며, 해남은 1.930으로 광주 동구와 13배의 격차를 보였다.

유기홍 의원은 현재 수준에서 전국 단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모아 인구를 반영해 지수를 뽑아냈다. 지역별

총 도서관 면적, 도서관 장서 수, 작은 도서관 수, 지역 축제 수, 영화관 스크린 수, 예술법인 및 단체 수 등 6가지 지표였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문화지수가 가장 높았고, 서구의 문화지수가 4.808로 가장 낮았다. 북구(9.188), 남구(6.335), 광산구(5.460) 순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무안의 문화지수가 15.072로 가장 높았으며 나주(9.312), 곡성(8.348), 영광(7.820), 완도(7.590), 순천(7.077), 구례(6.638), 영암(5.855) 순이었다. 문화지수가 낮은 지역은 해남(1.930), 광양(2.540), 진도(2.599), 고흥(2.908), 신안(3.008), 함평(3.560) 등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예술단체 공연 지방 외면

최근 3년간 광주 5건 불과… 서울 588건·광역시 87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열린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적은 횟수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개 국립예술단체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에서 연 공연은 5건에 8회로 울산(3건, 7회)에 이어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588건에 4408회의 공연을 열었으며 부산 27건에 335회, 인천 25건에 41회, 대전 14건에 26회, 대구 13건에 19회 순으로 나타나는 등 국립예술단 공연이 서울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광주에서 공연을 한 국립예술단체는 국립오페라단(2013), 국립발레단(2012), 국립극단(2011), 국립중앙극

단(2011), 국립국악원(2011) 등 5개 단체였다.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단체는 단 한차례도 광주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공연 87건은 서울 공연 588건의 14.8%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연 횟수로 따지면 서울 공연의 9.9%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이유로 국립예술단의 주요 공연이 다른 광역시보다 더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국립예술단이 국민 다수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데도 서울에서만 편중되게 공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 문화 소비 현상이 지속한다면 지방 균등 발전 차원에서라도 국립예술단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재독호남향우회, 광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파독 50주년을 맞아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재독호남향우회 고국방문단이 14일 광주시청을 방문, 강운태 광주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4명으로 구성된 고국방문단은 1960~70년대 독일로 건너간 호남 출신 근로자와 간 호사들이다.

<광주시 제공>

갈수록 피폐… 농어촌은 서럽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농어촌 생활이 갈수록 피폐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예산과 부채는 늘어난 반면 소득은 줄어드는 농가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뉴타운사업과 농가보조금 등 정부의 농어촌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전체 예산 중 3.8%로 하락했다”며 “다육이 정부는 지난 5월31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4년간(2014~2017년) 5조2000억원의 세출을 절

감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농식품부 예산은 2006년부터 전체 예산의 5.3%→5.1%(2007년)→4.8%(2008년)→4.6%(2009년)→4.4%(2010년)→4.3%(2011년)→4.2%(2012년)→4.0%(2013년)로 매년 그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황 의원은 “농업이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역대 정권에서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예산이 이처럼 홀대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작년 농가 전체의 부채는 31조4000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3.6%나 증가했다. 한 농가당 2726만원으로 이 역시 전 년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며 “반면, 5000만원 이상 농가소득자는 매년 감소해 2008년에 비해 지난해 5.1%나 감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과 전북의 농가 소득은 각각 2622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어촌 정책은 겉돌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가보조금은 1가구당 월 14만원으로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비율은 4.6%다”며 “이는 ▲OECD 국가평균 15.5% ▲EU 22.3% ▲미국 14.6% ▲일본 5.4%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농업 농촌에 ‘퍼준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농촌에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31.8%인데 고령농 연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3분의 1이나 된다”며 “그럼에도, 농촌의 국민연금가입률은 농촌인구

예산 4% 미만 첫 추락
부채 늘고 소득은 줄어
국민연금 가입 7% 뿐
농어촌 뉴타운도 실패

323만4000여명 중 22만9000여명으로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귀농정책의 일환인 농어촌뉴타운사업 실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뉴타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중간계획변경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으로, 예산도 927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 입주율은 54%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년 내 완공하겠다는 비현실적 사업계획 ▲농촌현실을 무시한 입주요건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도시에서 농촌으로… 작년 전남 1733가구 귀농

경북 이어 두번째… 전국 2년 연속 1만가구 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가구가 2년 연속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으로 이주한 귀농가구는 1700여가구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이 14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 수는 사상 최대인 1만1220가구로 집계됐다.

귀농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으나 2004년 1302가구로 늘었으며 2008년 2218가구, 2009년 480가구, 2010년 467가구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1만503가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넘어

섰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208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733가구, 경남 143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2011년 224가구에서 2012년 1027가구로 증가한 반면 강원은 2011년 2167가구에서 2012년 972가구로 줄었다.

김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자체가 귀농·귀촌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열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주백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 (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 (주백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36%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